

“깊어가는 가을...전통주·식도락 여행 어때요”

전남도는 깊어가는 가을 전통주와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고흥군 등 4곳을 11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여수 남도는 화산 지형으로 철분 성분이 많은 자연환경 덕분에 부드러운 맛의 막걸리 생산지다.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남도 막걸리는 100년 역사의 깊은 막걸리 맛을 느낄 수 있다.

함께 곁들여 먹기 좋은 시대화는 막걸리로 만든 천연식초로 무쳐 비린내가 적고 담백하며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잔칫날 반드시 장만하는 음식으로 여수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별미다. 남도 막걸리는 고유의 풍미 덕분에 해산물 요리와 함께 즐기기에 좋다. 여수의 신선한 해산물과 남도막걸리를 함께 맛보며 가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순천의 순천양조장은 이국적 분위기의 맥주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순

천에서 자란 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와 순천에서 직접 재배한 매실로 만든 탄산음료 매실사이더를 수제 햄버거와 함께 맛볼 수 있다.

또한 흑두루미, 순천만, 와은, 낙안읍성 등 '생태수도'라 불리는 순천의 이야기를 담아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다양한 생맥주를 맛보고 포장해 갈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과일로 만든 6종의 맥



전남도가 11월의 추천 관광지로 전통주와 지역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고흥군 등 4곳을 선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여수 남도막걸리에 곁들여 먹기 좋은 시대화, 순천양조장의 수제맥주, 나주 다도참주가 주조장의 생막걸리·술막걸리·과일막걸리, 고흥 유자술.

●전남도 11월 추천 관광지 여수·순천·나주·고흥 등 '食旅 여행지' 4곳 선정 특산물 활용 막걸리·생맥주에 곁들일 음식 풍성

주는 여성 고객에게 인기가 많다. 좋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코르크 마개로 포장된 선물용 수제 맥주를 구매할 수 있다.

나주의 다도 참주가 주조장은 1960년대부터 전통을 이어온 막걸리 양조장이다. 생막걸리, 술막걸리, 과일막걸리를 제조하고 있다. 이중 한라봉을 듬뿍 곁



아 넣은 '라봉' 막걸리는 2023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주조장에서 막걸리 제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나주 전통주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나주 영산포 흥어거리에서 흥어와 막걸리를 함께 맛보며 가을 식도락 여행도 즐길 수 있다.

고흥의 유자술은 고흥 지역에서 재배

한 유자를 사용해 만든 청주, 약주, 탁주, 동동주 등의 전통주다. 고흥은 우리나라 유자의 대표적 생산지다. 고흥 유자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향이 풍부하다. 유자술은 상큼함과 단맛이 좋고 도수가 낮아 식전주로 마시기에 좋다.

고흥 북동항에는 장어요리와 활어회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많다. 고흥마다에서 잡힌 활어회와 유자막걸리를 곁들이면 여행의 만족감을 한껏 높일 수 있다.

또한 카페에서 유자인슈페너, 유자 스무디, 유자 스콘 등 유자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에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가 다양하다"며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먹거리가 풍성한 가을, 전남에서 전통주와 함께 식도락 여행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곡성·무안에 제설자재 창고 신축

10억 투입 500t 보관 규모 폭설 대응 골든타임 확보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7일 "폭우·폭설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부권 제설자재 보관창고 2개소를 신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최근 기상 이변으로 겨울철 폭설 빈도가 증가하면서 신속한 제설작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제설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동절기까지 위임국도, 지방도 등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전남도가 보유한 제설자재 보관창고는 북부권(장성), 중부권(나주) 등 2개소에 불과했다.

제설작업 차량 이동 거리가 먼 동부권과 서부권의 경우 2회 이상 작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겨울철 폭설 시 제설자재 보충을 위한 차량 이동 시간이 길어져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권역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번에 준공한 제설자재 보관창고는 동부권(곡성), 서부권(무안) 등 2개소다.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각 연면적 219㎡ 규모로 건축됐다. 약 500t의 제설자재를 보관할 수 있어 겨울철 도로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제설창고를 이용하면 제설작업 대상 도로와 제설자재를 싣는 지점이

가까워져 최대 2시간의 작업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심야·새벽 시간대 긴급 제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고 제설작업 운송 비용 절감과 작업자들의 피로도 감소 등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올해 겨울 15t 덤프트럭 25대, 굴삭기 3대와 제설자재 2천400t을 사용 총 56개 노선, 3천312km(위임국도 9개 노선 600km·지방도 47개 노선 2천712km)에 대한 제설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경중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혹한과 폭설이 예고된 이번 겨울철 권역별 제설작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市, 겨울철 건설공사장 67곳 민·관 합동 점검

광주시는 7일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12월6일까지 4주 간 지역 건설공사장 67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국도안전관리원·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폭설·한파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폭발 사고나 추락사고, 저온으로 인한 콘크

리트 양생 불량 등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절기 화재·붕괴·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실태 ▲한중(寒中) 콘크리트 사용, 보온양생 계획 등 동절기 공사 계획 수립·적정 여부 ▲폭설 대비 비상용 제설자재·장비 확보 여부 등이다. /박선정 기자

광주시립수목원,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18일부터 선착순 모집

광주시립수목원은 7일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이 줄어든 어린이들을 위한 겨울 특집 프로그램 '똑똑한 로제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6~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잎을 땅에 바짝 붙여 지혜롭게 겨울을 나는 로제트 식물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모습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참가 신청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단체로 가능하며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12월3일부터 3주간 총 12회 운영되며 1회 당 최대 20명까지 참

여할 수 있다.

김용만 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어린이들이 지혜롭게 겨울을 보내는 로제트 식물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정 기자

KIDI, '11월의 섬' 신안 흑산도 선정

과거 유배지서 'K-관광' 중심지 기대

'자산어보의 고장' 신안 흑산도가 '11월의 섬'으로 선정됐다. 흑산도는 우리나라 최초 해양학 연구서인 자산어보가 탄생한 곳이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7일 "신안 흑산도(대흑산도)를 '11월, 이달의 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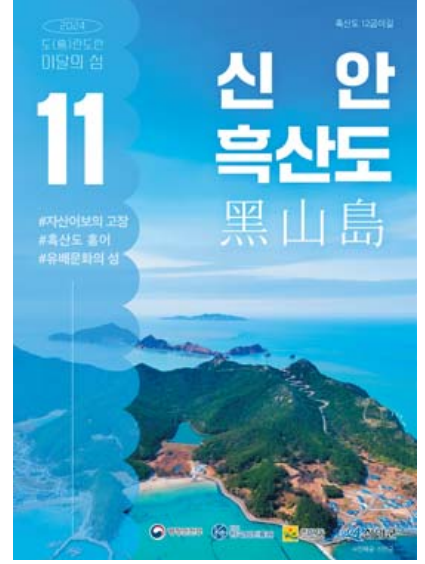
흑산도(대흑산도)는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약 92km 떨어진 다도해의 중심인 섬이다. 대흑산도를 중심으로 68개의 섬, 군도를 이루고 있다. 흑산도 총면적은 19.7km², 해안선 길이는 약 41km에 이르며 1천700여명(2023년 12월 기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흑산도(黑山島) 이름의 유래는 섬을 멀리서 보면 짙은 검은빛을 띤 산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졌다.

흑산도의 또 다른 이름은 '영산(榮山)'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고려시대 흑산도 주민들이 왜구의 침입을 피해 나주 영산포에 정착하면서 이 같은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흑산도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의 유배 생활을 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학서인 '자산어보'를 집필한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한·중·일 해상 교통로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최근 흑산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다. 이에 따라 과거 유배지에서 현재 휴양과 체험이 융합된 새로운 관광형 모델, 'K-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재정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